泰, 불교 상업화 골머리…자정 목소리 확산

스님 부적 · 호신불 영험담 등
민간신앙 판촉물 유통 성행
수행자 이미지 손상 주요인
스님 교육 등 솔선수범 촉구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불교의 심각한 상업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인뎁스 뉴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태국. 최근 태국 불교계에서 지나친 상업화를 넘어서 상업화 자체를 추구하는 불교의 모습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제 비영리 뉴스 네트워크인 '인 뎁스 뉴스'는 태국 불교에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정리, 보도했다. 인 뎁스 뉴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국 불교계 내에서 지나친 민간신앙과 결합한 불교의 상업화가 만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피터 잭슨 호주국립대 아시아학 교수는 인 뎁스 뉴스를 통해 "호신불의 형태로 만들어진 다양한 부적과 불교이전의 애니미즘 등에서 전해오는 민간 신앙이 태국에선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면서 "특히 군부와 보수적인 엘리트 계층에서 이러한 모습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은행이나 대기업 등은 이러한 부적의 생산과 유통을 판촉물로 사용하여 그 유통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러한 호신불과 부적들은 태국의 많은 사찰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태국에서는 민간에 깊게 뿌리박힌 애니미즘이나 힌두교에서 유래한 신앙이 불교와 혼합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리에는 힌두교의 신인 브라흐만이나 가네샤를 모신 사당에 불상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많다. 또 재가신자들 가운데 특히 수행이 깊고 다양한 기도의 례를 봉행하는 전문 수행자인 '레우시(reusi)'들 역시 이러한 민간신앙을 강화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인 뎁스 뉴스는 "1980년대부터 태국에서는 정통 불교에 속하지 않은 힌두의 신이나 역사적인 인물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소개하며 "기존 불교종단들에서도 이것을 수정하려는 노력보다 불교의 신행 중 하나로 용인하고 넘어갔다"고 전했다. 피터 잭슨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20세기 후반부터 불교를 감독하는 당국의 경각심이 약해졌고, 태국 불교계 내에서도 성적, 재정적 스캔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 출가 수행자들의 이미지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중심의 경제 발전과 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관행의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태국을 넘어 인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수행이 높은 스님에게 부적이나 호신불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등의 영험담이 퍼지면서 소위 신통을 가진 스님들이 만들었다는 물건들은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인 뎁스 뉴스는 "여기에 더해 현지에서는 이러한 스님들 가운데 이미 입적한 스님들을 마치 신과 같이 신격화하며, 영매를 통해 이미 입적한 스님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샤머니즘적인 신앙도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를 추구하는 것을 불교에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를 넘어서 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습은 불교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불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예경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결코 부와 명예를 부르는 부적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스님들부터 이것에 대한 교육에 나서야 한다"며 승단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美 불교국제단, 가자지구 구호성금

팔레스타인 피란민에 식량꾸러미 전달 예정



식료품, 물, 응급 의료용품을 실은 구호트럭이 가자지구에 진입했다. 사진출처=유엔 뉴스

미국 불교국제구호단이 가자지구 분쟁으로 기근에 빠진 주민의 식량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1월 2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미국 불교국제구호단체 BGR(Buddy Global Relief)의 가자지구 분쟁 피해자들을 위한 식량 구호 성금 전달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및 봉쇄정책으로 물과 식량 공급이 차단돼 가자 주민 57만명이 대규모 기아에 직면했다. 신디 메케인 유엔 사무총장은 "아주 적은 분량의 구호품이 한정된 통행로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피란민 모두를 돕기에는 역부족이다. 구호품이 전달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아사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며 유엔 회원국에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불교국제구호단 보디 스님은 "가자지구 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5만달러(한화 약 6700만원)의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에 전달돼 가자 피란민들에게 밀가루, 강화 비스킷, 따뜻한 식사,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보충식 등을 담은 식량 꾸러미로 전달될 예정이다. 가자지구 분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국제구호단 데이비드 브라운 부회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 죽음과 상실을 경험했다"면서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려면 먼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 평등심을 가져야한다'고 전하셨다"면서 "불교국제구호단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피란민들이 직면한 상처와 굶주림 등의 피해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사찰 내 비구니스님 성폭행 문제 불거져

"은사에게 정신적 지배 당했다"
에이쵸 스님 종단에 멸빈 요청



기자회견에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는 에이쵸 스님.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일본 천태종의 한 사찰에서 약 14년에 걸쳐 은사로부터 성폭행과 협박을 받아온 한 비구니스님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비구니스님은 자신을 성폭행한 은사스님과, 이 스님을 소개한 대아사리의 승적을 멸빈조치 해줄 것을 일본 천태종에 요청한 것으로 전했다. 1월 31일 일본의 '아사히신문' 등 현지 주요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시코쿠에 거주하는 천태종 소속 비구니 에이쵸 스님은 자신의 법적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지난 1월 31일 오전 도쿄도 내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나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대아사리에 대한 존경심을 이용당해 오랜 기간 성적인 피해와 협박이라는 폭력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천태종 종무청에 이 스님과 이를 은폐하려 한 대아사리의 승적을 멸빈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에이쵸 스님은 반복된 피해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에이쵸 스님의 변호사는 "스님은 지난 2009년 10월 은사스님의 호출에 불려간 절에서 성행위를 강요받았고, 그후에도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심리적으로 감금되어 반복적인 가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사건의 배경에 대해 "에이쵸 스님은 조부가 천태종 스님이었던 것에서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를 부탁하러 만난 대아사리에게서 현재의 은사를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대아사리는 "당시 그를 자신의 상수제자로 소개하며 그 스님의 절을 다니 것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대아사리는 현재 일본 천태종에서 단 6명뿐인 최고위 법계로, 종단 안팎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 에이쵸 스님은 "은사에게서 받은 피해를 대승정에 상담했지만, 그때마다 은사를 따르도록 지시했고 '이 일이 공적으로 밝혀지면 곤란하다'며 되돌려 보냈다. 종단도 대아사리의 지위에 눈치를 보고 지금껏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나의 법명과 사연을 숨기지 않고 밝힘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 여겨 이 자리에 나섰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미 지난 2019년 은사에 대해 성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에이쵸 스님의 기자회견 후 가해자로 지목된 은사스님은 언론의 취재에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대아사리 역시 "(상수제자로 믿었던) 그 스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질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멸빈 요청을 받은 일본 천태종 종무청은 "대응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또 사찰 대상 범죄…절도 사전 계획 추정

절도 사건에 사원 불안감 증폭



사원에 무단 침입한 괴한과 차량이 사원 보안 카메라에 녹화됐다. 사진출처=왓 암파완 사원

미국에서 연이은 사찰 대상 강도·절도 범죄가 일어나 교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월 21일 미국 테네시 주 방송국 'WKRN'은 태국계 사찰 무단 침입 피해 소식을 전했다.

머프리즈버러에 위치한 왓 암파완 사원 요사채에 괴한이 침입했다. 사원이 제공한 보안 영상에는 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괴한 6명이 차량에서 내려 요사채로 침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약 4분 후 사찰에 머무는 외국인 유학생을 마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왓 암파완 사원 관계자는 "미 전역에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왓 암파완 사원에 침입한 6인조는 우리를 절도 목표로 삼아 사전 조사를 온 것 같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각 주 경찰은 연이은 사찰 대상 범죄로 FBI와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FBI 윌리엄스 요원은 "FBI는 성전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며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왓 암파완 사원에서 약 50km 떨어진 파드마삼바바 사원에서도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절도범들은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 든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의 행방은 아직 묘연한 상태다. 김민재 객원기자

2024년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제6기 신입생 모집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인가한 개방형 전문교육기관입니다. 2014년도에 개원한 본원은 2024학년도 제6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3급 승가고시를 앞두고 있거나 재교육을 통해 불전·선전에 대해 심층적 전문 연구를 희망하는 비구니 스님들입니다. 한역불전을 바탕으로 수학하고 연찬하는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불교 사상의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여 지혜로운 세상을 가꾸고자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환영합니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연담 묘순

문의 : 010-9473-2849 (간사 진상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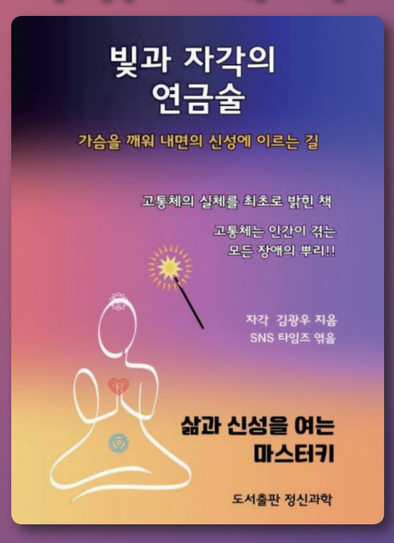
모집요강
■ 모집인원 : 개방형 (통학) ○○명
■ 지원자격 : - 구족계를 수지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타 종단 소속 비구니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진(3×4) 2매
■ 모집일정
• 접 수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024년 3월 2일(수)
• 전 형 방 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전형 / 면접: 3월 4일(월) 오후 3시
• 접 수 방 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삼선포교원)
•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통보
• 등 록 금 : 1학기당 70만원 / 재수강(본원 졸업생에 한함) 30만원
• 입학 및 개강일시 : 2024년 3월 13일(수) 오후 2시

특 전
① 졸업 후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② 장학제도 : 대학원생 전원 2년에 총 2회 지급
③ 청강제도 : 본원 졸업생이 아닐 경우(비구.비구니) 한 과목당 40만원

교육과정 (2년 4학기)
■ 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8시

	학기	교과목
1학년	1	아함경 I, 한국불교사, 한문기초문법 및 서장 I
	2	아함경 II, 대승기신론 I, 서장 II
2학년	1	대방광여래장경, 보조법어, 선요
	2	유가사지론 사소성지, 대승기신론 II, 화엄오교장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자각선원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책은 알라딘, 예스24, 교보에서 판매중입니다